10개 거점국립대 '디지털 연합교육' 큰걸음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3차 정기회의 개최
KNU10 기반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약 체결
내년 봄 시범 운영 '신형 LMS' 논의도 진행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KNU10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비롯한 대학 현안을 논의했다.

그간 공유성장형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위해 학점교류의 시행과 확대를 모색해 왔던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이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를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KNU10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비롯한 대학 현안을 논의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은 그간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시행해 왔던 원격수업 학점교류를 서울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이 학점교류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를 향한 단계적 실천을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10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이에 뜻을 같이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고, KNU10 기반의 원격수업 학점교류와 공동 콘텐츠 개발 등 제반 사항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 이러한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안건으로 'KNU10 공유교육을 위한 통합 신형 LMS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협의회는 원격수업 학점교류에 활용된 기존의 KNU9 LMS의 문제점을 보완한 KNU10 통합 LMS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올해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봄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원격수업 학점교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급 추진 방안도 모색됐다. 학령인구와 학부 입학자 수 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대학원생 유치에 새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학부생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대 대학원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외부 강연자로 서울대 정보화본부장인 김홍기 교수를 초청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야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사업에 대한 특강을 청취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김동원 회장(전북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뉴노멀 시대 거점국립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사교류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디지털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천현 우석대 총장
전주캠퍼스 학생회와 소통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이 지난 21일 진천캠퍼스에 이어 22일 전주캠퍼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임원진을 집무실로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천현 총장은 학생회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소소한 의견도 꼼꼼히 경청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항구적인 대학발전 청사진을 학생회에 재차 제시하는 등 소통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남천현 총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학교는 많은 것이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라며 "우리 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학생회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현규(유통통상학부 4년) 총학생회장도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과 그동안 학생회에서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총학생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학생회 활동으로 일반 학우들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대학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천현 총장은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전주캠퍼스 학생회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간담회 이후 대학 인근 음식점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임원진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법조 체험 프로그램, 성과 '톡톡'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운영
올 단일 학부 최다 인원인 12명이 로스쿨 합격 집계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 교수)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 변호사)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조 실무 경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큰 호응과 함께 실제 로스쿨 합격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역 공공인재 양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 지난 2019년부터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을 대상으로 법조 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공공인재학부는 로펌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주지방법원 견학, 재판 방청, 변호사 특강 등 다양한 현장 체험과 변호사와의 토론 및 대화 자리를 마련해 생동감 있는 전공 교육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도 상당하다. 공공인재학부는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2명의 합격자는 국가거점국립대 단일 학부 중 최다 인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올해 감정평가사에도 1명의 학생이 최종 합격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2일에도 로펌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공인재학부생뿐 아니라 인재등용관의 법전원 진학 준비반 학생 등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원 견학, 공개재판 방청, 판례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사전 과제를 수행한 후 전주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재판 단체 방청과 법률사무소 현장에서의 실무체험, 그리고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도 가졌다.

유현종 학생(공공인재학부)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조 현장과 변호사님들을 만나 법조계의 흐름과 변호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할 수 있어 느낀 점이 많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

도교육청, 고위공직자 특별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전북도교육청은 '2022년도 고위공직자 등 특별청렴교육(청렴라이브)'를 23일 오후 2시부터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고위공직자 등 특별청렴교육(청렴라이브)'를 23일 오후 2시부터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서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각 실과 팀장(5급 상당) 이상 간부들이 참여했다.

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부장·과장 이상, 각급 학교 5급 행정실장 및 공사립 고등학교장까지 참석자를 확대, 고위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비롯해 청렴판소리, 샌드아트, 청렴감동영상 등 공연형식으로 이루어져 효과성을 더욱 높였다.

서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라면서 "앞으로 우리는 더 청렴해야 한다. 청렴 이상의 청렴을 향해 전북교육을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편식 예방 체험 교육 '호응'

전북대학교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 교수)가 관내 어린이급식소 및 부모,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어린이들의 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창작극 등의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센터는 올해엔 '풍덩! 바닷속으로'라는 주제로 바다 식재료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바다 속 생물들이 등장하는 창작극을 통해 바다 식재료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바다 수심에 따른 바다생물을 알아보는 체험 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바다 속 생물을 떠올리며 바다 팔찌 만들기 활동과, 꽃게를 활용한 요리 체험을 통해 바다 식재료에 대한 직접적 이해의 시간도 가졌다.

노정옥 센터장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들을 식습관 개선뿐 아니라 정서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북도,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고교학점제 대비

도교육청, 11월 5일까지
도내 4년제 5개 대학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도내 대학이 연계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주간 일반고와 도내 4년제 대학 5개 학교가 참여하는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와 학업설계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과 지자체·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축을 내실화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 대학은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이며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을 주제로 특강 및 탐구활동 중심의 강좌를 운영하게 된다.

개설된 강좌는 주요 프로그램의 특성과 지도 교원 수급, 활동 공간 등의 한계로 단위 고등학교에서 설강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학 학과에서 협력하여 진행된다.

각 대학별 강좌를 살펴보면 △전북대 - 경영학 여행, 심리학, 자율주행차 △전주대 - 박물관과 역사콘텐츠, 영화 속 법률, 단편 영상 제작, 외식조리실무, 패션산업 기초, 특수교육 학습자료 제작, 융합과학 전공체험 △군산대 - 응급처치, 창업과 취업, 유전자 침묵, AI와 소프트웨어 코딩 체험, 반도체 △원광대 - 한의학 교육과정 체험, GMO 만들기, 장내 미생물 생태계 △우석대 - 인공지능 활용법, 기능성화장품의 이해 등이다.

총 20개 강좌에 각 강좌별 20시간씩(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5주) 진행되며, 도내 42개 일반고에서 279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의 지원(일부 대학 재원)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강좌 이수 학생에 대해서는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김재훈 기자

탄소 복합소재 기반 해상풍력 구조물 제조 고도화

전주대 산학협력단, 도건엔지니어링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진 교수)은 지역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자 (유)도건엔지니어링과 지난 2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의 탄소연구소는 2010년 설립되었으며 전북 탄소 산업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체계화된 탄소 전문 고급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해 탄소 산업의 원천기술 및 응용 기술 발전에 혁신적으로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2016년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9년간 총 70여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탄소 분야의 연구 및 고급인력 양성을 꾸준히 해왔고 많은 탄소제품 융복합 실용화에 앞장서 왔으며 전문교수진과 전북도내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융복합 연구에 매진해 탄소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유)도건엔지니어링은 전북 고창의 기술혁신/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전라북도 내 20개 해상풍력발전기의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식성, 고강도 등의 특성을 갖는 탄소 나노 제품이 해상풍력 발전기의 구조물에 이용하고자 탄소연구소의 기술력을 기술이전 및 자문을 통해 활용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특성화고 학생, 전국상업경진대회서 '우수'

금상 5 · 은상 3 · 동상 11개 등 입상 쾌거

전북 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전북 대표 학생들은 금상 5개, 은상 3개, 동상 11개를 수상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상업정보고 등 10개교, 총 121명이 참여해 금융실무 등 8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비롯해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든 출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천 명의 학생들이 천 개의 진로를 찾아 실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